



정우성 작가의 사진전 '밀재:밀재에서 본 새벽풍경'이 12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위치한 파킨슨행복센터에서 열린다.

/김생훈 기자

렌즈에 담은 새벽의 빛·그림자

정우성 작가 첫 사진전 '밀재:밀재에서 본 새벽풍경'

단지 카메라가 좋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고등학생 소년이 있다. 단체 사진이나 일상 사진부터 찍기 시작한 소년은 성년이 되어서도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연구 현장, 여행, 풍경 등을 렌즈에 담았고 스튜디오와 수중 사진도 찍었다. 그렇게 사진 찍기를 45년. 행복센터에서 파킨슨병 환우들의 가족사진을 찍은 후 첫 사진전을 열기로 마음먹었다는 정우성 작가(64·가나토건 대표)가 첫 번째 사진전 '밀재:밀재에서 본 새벽풍경'을 연다.

용진산·무등산 배경 신비한 매력

오늘부터 26일까지 파킨슨행복센터

11일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위치한 파킨슨행복센터에서 만난 정우성 작가는 설렘과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을 찍은 지는 오래됐지만 본인의 사진을 남들 앞에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다.

밀재라는 한 장소에서 6년간 찍은 사진을 한데 모은 이번 사진전은 똑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두 개의 봉우리가 인상적인 용진산을 중심으로 도시의 야경과 시골의 호젓한, 신선이 사는 듯한 안개 낀 모습 등 사진마다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그의 사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보인다

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밀재임에도 불구하고 일출 30분 전인 블루아워부터 일출 후 30분인 골든아워까지 같은 풍경 속 저마다 다른 색을 담아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 때문일까. 어떤 사진은 수채화 같고, 어떤 사진은 수목화 같기도 하다. 안개가 자주 낀다는 밀재의 지형적 특징 또한 그의 사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적색 또는 녹색의 아름다운 담색으로 빛나는 채운(彩雲),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대비가 인상적인 또렷한 빛살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그의 사진 특징 중 하나다. 30분가량의 골든아워 중에서도 잘나를 잡아내야 찍을 수 있는 황금빛 풍경과 낮게 떠 오르며 비추는 햇살이 나무나 숲에 걸리며 생기는 긴 빛 그림자는 한 폭의 동양화 같기도 하다.

풍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종종 보정 과정에서 삭제되기 일췌인 전선이나 송전탑 등도 작품 속에 그대로 담았다. 공대 출신이라 전선에도 애정이 간다는 작가는 전선에 햇빛이 반사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작품 속에 담아내는 등 사진 속 그 어떤 피사체도 허투루 찍지 않는다. 그의 사진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은 한 컷을 위한 노력이 한 톨에도 의미를 담은 화가들의 오랜 고민과 닮아서일 것이다.

정우성 작가의 사진전 '밀재:밀재에서 본 새벽풍경'은 12일부터 26일까지 파킨슨행복센터(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459번길 64)에서 열린다. 전시 개막행사는 오후 2시이며 이번 사진전 수익금은 파킨슨행복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밀재:밀재에서 본 새벽 풍경' 사진전을 앞둔 정우성 작가가 밀재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밀재는 새벽이 가장 아름답다. 밀재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인 불갑산 위 연실봉에서 사진을 찍는데 못 보던 풍경이 나타날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첫 번째 사진전 '밀재:밀재에서 본 새벽풍경'을 여는 정우성 작가는 "지난 여름 파킨슨병 환우들의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재능기부 캠페인이 계기가 됐다"며 "내가 찍은 사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함평군 해변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고개인 밀재는 사진작가들에게는 사진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다. 정작가는 "새벽녘 밀재에서 볼 수 있는 약 16km 떨어져 있는 용진산과 아스라이 보이는 무등산, 안개, 일출과 일몰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몽환적이고 신비로움과 호젓하기까지 해 마음에 들었다"며 "그 매력에 빠져 6년 동안 밀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만났습니다 정우성 작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사진에 담아내야죠"

정 작가는 밀재의 새벽을 찍기 위해 일출 두 시간 전부터 집을 나서 촬영을 시작한다. 밀재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인 불갑산 위 연실봉에서 약 2시간 가량 사진을 촬영하곤 하는데, 원하는 사진을 찍고 나면 그날 하루는 엔돌핀이 넘칠 정도로 행복하다고 했다.

망원렌즈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촬영 포인트에서 무등산 정상까지의 거리가 40km, 가까운 용진산 또한 약 16km 떨어져 있어 최소 70~200mm부터 600mm 렌즈로 촬영해야 먼 풍경까지 담아낼 수 있다"며 "망원렌즈로 찍는 풍경의 또 다른 매력을 사진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의 특징인 빛살 그림자에 대해서는 "본래 빛살 그림자는 잘 보이지 않아 후보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연과 빛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그림자만을 강조하는 보정을 통해 빛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해가 뜨고 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집중해 신중하게 셔터를 누르는 편"이라며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그림 같은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사진 또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